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전례 없는 물고기대풍을 마련한 조선인민군 15호수산사업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1 면에서 계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가공장에 들리시어 종업원들의 작업모습을 보시면서 모든 가공공정의 자동화, 로봇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 로력을 절약하면서도 위생성을 철저히 보장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랭동저장고 마다에 산더미같이 쌓아놓은 물고기를 보시며 마치 금피를 무겨놓은것 같다고, 랭동한 물고기관들이 딱 찼다고, 평년도 9월까지 근인 일인당 매일 200g씩 공급할수 있는 물고기를 보관하고있는데 대단하다고, 쌓였던 피로가 맑끔히 가서진다고 환하게 웃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종합지령실도 돌아보시면서 이곳 수산사업소에서

어장탐색과 물고기잡이를 비롯한 생산과 경영활동의 정보화, 과학화를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 목표를 내세우고 도입한 해양환경정보분석평가체계, 해상지위체계, 물고기가공설비조종체계, 전력감시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혁명사적교양실, 연혁소개실, 문화회관, 과학기술보급실, 정양소를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모든 생산건물, 생활건물들이 설계도 잡히고 시공의 질도 높다고, 어로공들이 정말 좋아할것이라고 하시면서 레년에 이곳 사업소의 종업원들을 위한 살림집까지 짓물 어지게 지어주시겠다는 은정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여기저기를

돌러보아도 지난해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수없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동해지구에 또 하나의 자랑할만 한 수산기지가 훌륭히 일떠섰다고, 이렇게 우리 손으로 일떠세운 창조물을 볼 때가 제일 기쁘고 힘이 붙어도 일하는 보람을 한껏 느끼게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300일출어일수를 보장하고 계절에 구애됨이 없이 물고기를 집단적으로도 잡고 분산적으로도 잡으며 먼바다에서도 잡고 가까운 바다에서도 잡으며 큰 배로도 잡고 작은 배로도 잡는 식으로 설계없이 어로전투를 전개할데 대한 문제, 고기배와 어구들을 보다 현대화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릴데 대한 문제, 어로공들이 물고기잡이에 전심전력하도록 그들의 생활을 잘 돌봐줄데 대한 문제 등 사업소의 관리운영에

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15호수산사업소를 만족하게 돌아보았다고 하시면서 올해 인민군대 수산부문에 서 이룩한 놀라운 성과를 통하여 황금해의 역사를 계속 줄기차게 이어나갈수 있다는 확신을 더욱 굳게 가지게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군대의 수산부문에 서 오늘과 같은 물고기대풍, 물고기사태를 안아올수 있는것은 결코 사회의 수산부문보다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라 당정책은 곧 과학이고 승리라는것을 신념으로 간직하고 당에서 준 과업은 오직 무조건 집행할 의무밖에 없다는 결사관철의 정신을 높이 발휘한데 있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는 지금 황금해력사창조의 갈피

갈피를 자기의 뜨거운 총정의 맘방울로 써나가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15호수산사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다음해에도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아 당의 수산정책관철에서 선봉에 서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인민군 15호수산사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자기들의 일터에 또다시 찾아오시어 대해같은 은덕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다함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리면서 김정은동지의 현지 말씀을 빛나게 관철하여 황금해로 빛나는 내 조국의 푸른 바다에서 《바다 만풍가》의 흥겨운 노래소리가 영원히 줄기차게 울려 퍼지게 할 불라는 결의를 다지였다.

본시정지도모반

